

당정 “금어기 없애고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 적용”

어업규제 1500여건 절반으로 줄여 10t 미만 어선도 비개방 정밀검사 어업현장 자율성·효율성 대폭 향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일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철폐하면서 총어획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업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 관리체계, 이른바 총허용어획량(TAC)으로(제도들)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진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제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통상 협상력을 갖추기로 했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 유통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5t 미만 어선에만 적용된다.

“정치성(定讞性) 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 규모도 현재 8t 미만에서 25t 미만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학습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중언어 학습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와 다른 부모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중언어 직접 교육을 선호하는 다문

화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 만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이중언어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수업 지도안 등을 담은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침’을 제작해 전국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중언어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강점을 개발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경찰 사용자 정보 등 확보 분석

경찰이 2년여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71) 전 대표 캠프가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경기 성남시의 카카오 사육 판교 아지트를 압수수색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은 지난 5월 이 전 대표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캠프에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90개의 ID로 다음 포털 뉴스 페이지의 댓글을 작성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감수를 올려 ‘베스트댓글’을 만드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유리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댓글을 베스트 댓글로 만든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댓글 조작이 민주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정부 “IAEA, 오염수 해저흡수 제대로 다뤘다”...美 전문가 주장 반박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핵종의 해저 침전물 흡수 관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페렐 달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언급했다.

전날 일일브리핑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반박했다.

인터뷰에서 달노키베레스 교수는 “오염수 방류량이 늘어날수록 침전물에 흡수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이 흡수량은 침전물의 종류

와 핵종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IAEA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IAEA 종합보고서를 보면 도쿄전력은 방류 첫해부터 해수 농도와 해저 퇴적물의 농도가 최대가 됐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평가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된 어종 수가 너무 적고, 조개나 크릴 등 여과섭식자(물속 부유물질을 걸러먹는 동물)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거론했다.

그는 “이같은 지적은 도쿄전력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편평어, 게, 갈조류 3종을 선택한 것을 문제삼

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이 3가지 어종은 도쿄전력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제시한 대표 해양 어종”이라며 “ICRP는 이 어종에서 검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든 해양 생물이 동등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인 3~6월 전국 28개 전통시장 300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현금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尹, 일주일 여름휴가...재충전 하며 정국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다”며 “잠모들도 상당수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대부분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낼 전망이다. 휴가 기간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전국 각지를 방문하기로 한 데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술선수밖’하려는 뜻이 담겼

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휴가 때는 지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닷새 동안 서초동 사저에 머물러 저도 방문은 공식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산적인 현안을 뒤로 하고 휴가를 낸 만큼 윤 대

통령은 재충전뿐 아니라 향후 정국 구상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아파트 부실 공사 관련 이권 카르텔 허파에 대해서는 틈틈이 참모들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으며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한다.

휴가 뒤 소폭 개각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개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 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